

21世紀 教育研究의 課題와 展望

桑原敏明

(筑波大學 教育學系 教授)

머 리 말

필자의 21세기 교육연구에 대한 바람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교육연구는 교육현실에 한층 더 공헌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오늘날 주제를 21세기의 교육현실에 공헌하는 교육연구를 어떻게 구상할까라는 물음으로 바뀌서, 그 물음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말해 보려고 한다.

1. 日本에 있어서 교육연구의 현실적 공헌

일본에 있어서 교육연구의 교육현실에 대한 공헌은 만족할 만한 것일까? 유감스럽지만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의 교육연구는 이 현상으로부터 탈피해 크게 그 시대의 교육현실에 공헌하고, 교육연구의 현실가치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연구, 따라서 교육연구자의 교육현실에서의 공헌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례를 조금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 1> 임시교육심의회에의 교육학자의 참가 정도

A. 日本 臨時教育審議會의 構成

위원 25명(회장, 부회장을 포함)

그 중에서 국민학교 교사 1명, 중학교 교장 1명, 都道府縣 교육장 1명, 교육학자 1명, 전문위원 20명 중 교육학자는 겨우 4명

B. 韓國의 教育改革審議會(大統領直屬)에 教育學者의 參加 狀況

회 장 서명원: 문교부장관, 교육학

부 회 장 홍응선: 교육학

제1분과회(교육제도) 위원장 김영식: 교육개발원장, 교육학

제2분과회(초중등교육) 위원장 강우철, 교수, 교육학

제3분과회(초등교육) 위원장 장인숙: 대학교육협의회 사무국장, 前문교부차관

제4분과회(교육발전)	위원장 정원식: 교수, 교육학	
제1분과회	위원 7명 중 교육학 2명	전문위원 3명 중 교육학 3명
제2분과회	위원 5명 중 교육학 3명	전문위원 2명 중 교육학 2명
제3분과회	위원 7명 중 교육학 4명	전문위원 2명 중 교육학 2명
제4분과회	위원 6명 중 교육학 2명	전문위원 2명 중 교육학 2명
합 계	위원 25명 중 교육학 11명	전문위원 9명 중 전원이 교육학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교육학에 대한 기대〉

교원에게 교육학은 필요 없다고 하는 풍조.

교육위원회에서 高名한 교육연구자의 강연 거부.

대학에 있어서의 교직과목 담당자로서 교원 경험자의 등용 요망.

〈그 원인〉

확실히 일본에 있어서는 교육정치(입법·행정·사법)의 체질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연구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후의 과제〉

일본의 교육연구는, 교육정치에서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교육이론이나 법칙을 축적하여, 그것을 기초로 교육개혁과 학교개선, 그리고 교사교육에 대하여 유효한 제언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연과학이 산출한 $1 + 1 = 2$ 의 덧셈 정리와 에너지불변의 법칙, 그리고 지동설과 같은 것은, 마지 못해서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치가도 무시할 수 없는 원리와 법칙이 되었다. 교육학은 이것에 비견하는 원리와 법칙을 정립해 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教育法則事典」 또는 「教育學研究成果事典」 등을 정리해 내는 노력을 해 왔는가? 지금까지의 教育辭(事)典류를 조사해 봐도, 「教育의 原理, 原則」, 「教育의 法則」, 「教育條理」 등의 표제어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우리 일본의 교육연구가 교육의 원리와 법칙의 탐구를 정면의 과제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금후의 교육연구에 있어서는, 교육의 법칙과 지금까지 연구에서의 분명한 성과(미해명의 문제도 함께)를 『教育研究事典』에 축적해, 그것을 참조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이나 교사교육은 물론, 교육활동과 교육연구도 헛수고로 끝나 버리고 만다고 하는 본때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岩波教育小辭典」(1982. 2 간행)은 문자 그대로 간편하면서도 교육연구 초심자로부터 성숙한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전인데, 거기에는 『교육연구란—교육과정, 즉 교육자가 청소년들에게 의식적, 목적지향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적 영향과정의 중핵으로서, 그것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거기에서 합법칙성을 발견해 그것에 의해 교육자의 목적화』

등을 보다 유효하게 하는 합리적 기술의 기초를 해명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59페이지). 지금까지의 교육연구는 교육영위의 「합목적성」을 어느 정도 발견하였으며, 「교육활동에 유효한 합리적 기술의 기초」를 어느 정도 해명해 왔는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을 보면 참조할 수 있는가? 40년 전에 간행된 「教育學研究事典」(金子書房, 1954)이 위에서 말한 그러한 기능을 가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1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새롭게 간행되어 20세기의 교육연구를 총괄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2. 우선 基本用語의 共通理解에 到達하는 일부터

위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째는, 기본용어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발달하는 전제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개념이 과학자 간에 통일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수의 표기도 수식의 표기도 원소기호도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왔다. 그 때문에 바로, 세계로부터 同學의 연구자가 법칙과 진리의 발견에, 문자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문과계, 사회계의 제 과학에서는, 단번에 기본용어의 국제적 통일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한 나라 안에서는 최소한 기본적 용어와 개념에 관해서 그 통일이 달성되지 않으면, 법칙과 원리 발견의 數列에 다수의 연구자가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안 되면, 입장과 사상을 넘어서, 정치가와 실천가에게 「법칙성과 그것을 기초로 한 합리적 기술의 기초」를 보여 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교육연구 현상은 어떠한가? 「자칫하면, 혼란해져 제멋대로 되기 쉬운 교육관계 용어를 정리」(「岩波教育小辭典」의 머리말)하는 것은 교육사전의 역할이다. 일본의 교육사전의 편찬의 역사는 충분히 길고, 그 숫자도 꽤 많다. 그러나 용어 통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직도 심한 혼란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교육연구의 고유 마당을 정하는 「교육」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4개의 大教育(學)辭典은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자료 3〉 教育學大辭典의 「교육」 항목의 서술내용

A. 教育學辭典(전 5권), 1936-39, 岩波書店(?집필)

[語義] 孟子 『盡心』/『中庸』/朱子/『那語』/education/명치유신 이후 사용, [意義] 광의/협의/最협의/「자연의 이성화」/개인주의의 교육과 사회주의의 교육/「人道の 교육학」, 「교육작용의 구분」, 智·德·美·體/비형식적, 형식적/가정, 학교, 사회

B. 教育學事典(全6卷), 1954-1956, 平凡社(海後宗臣執筆)

[定義] 인간사회의 기본적 기능/가치실현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成立] 원시사회/교육제도의 성립/여러 가지의 형태, [形態] 생활교육의 형태/사회교육형태/학교교육의 형태, [社會性] 농촌, 도시/미개, 문명/자본주의, 사회주의/사회와 교육의 상호규정성, [歷史性], [體制] 사회성과 역사성이 만들어 내는 체제/국민교육의 체제, [實體] 체제의 안에서의 교육활동/교육주체/교육객체/교재/교육방법/교육환경(시설, 설비)

C. 教育學大事典(全6卷), 1978, 第一法規(村井實執筆)

[定義] 여러가지의 정의/여기에서의 정의, [교육과 教育學的의 發生] 어린이를 「선하게」하는 것의 직접관여—그리스 시대, [교육에 대한 思考—세 가지 모델] 「수공업 모델」/「농경 모델」, [近代教育의 開發] 교육투자론에 바탕한 三重苦, [近代教育의 막다른 길] 4개의 막다른 길, [새로운 課題—새로운 모델로] [人間] 모델의 제창

D. 新教育學大事典(全6卷), 1990. 7. 31, 第一法規(上田薰執筆)

[自己保存으로서의 教育], [보다 좋은 環境에의 志向], [價値觀의 變革과 教育], [教育의 中立性], [未來성과 民主主義社會], [다쳐올 世界와 教育], [自己保存을 넘어서는 것]

3. 教育學과 當爲學의 統一

교육현실에 공헌하는 교육연구를 기대하기 위한, 두번째 전제조건은, 교육현실에 지침을 보여 주려는 자세로 연구가 항상 풍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岩波教育小事典』은 「교육의 연구는 특히 실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합리적, 실증적임과 동시에 목적지향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다.」(60쪽)라고 단언하고 있다. 여기서 「目的指向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실천의 개선, 개혁을 지향하는 연구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교육연구는 諸 관련과학을 원용하여 교육현상의 설명에 열심인 것은 극히 많지만, 그 교육문제의 해결에 처방을 제안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매우 빈곤하다.

그런데, 학문, 즉 궁구해야 할 물음에는 3종류가 있으며, 이에 응하여 세 가지의 學(事實學, 當爲學, 方法論)이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물음을, 당위학은 개선, 개혁의 모습에 대한 물음을, 방법론은 사실 또는 당위의 물음에 접근하는 방법상의 물음을 명확히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教育學이라는 技術學(정책입안, 실천처방의 學)은, 궁극에 있어서는 당위학의 성격을 가지고, 그 성과에 의해 사회적 존재가치 혹은 존재 이유가 승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사실학은 정확한 당위학의 확립을 위해서 존재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물론 여기서, 사실학을 위한 사실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연구현상에 있어서 사실학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심화되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봉사하는 당위학을 지망하는 연구자는 너무나 적고,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있어서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教育改革, 教育刷新에 貢獻하는 教育研究

교육개혁이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교육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교육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살아 가는 힘을 증강시키는 각자의 노력을 원조하는 것, 즉 교육이란 「살아가는 힘의 증강작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문제란 인간이 살아가는 힘을 정체, 쇠약, 왜곡, 파행시키고 있는 현실을 일컫는 것이다. 더욱 파고 들어 생각할 때 인간이 살아 가는 힘이란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의 답을 한다면 그것은 1) 體力, 2) 技術力, 3) 交信力, 4) 社會經營力, 5) 知力, 6) 情緒力, 7) 意志力の 7개이다.

1) 體力—생물체의 일종으로서 신체적, 생리적으로 생명을 保持하는 힘. 체격·건강·신체력 등으로 이루어짐.

2) 技術力—체력을 구사해서 생산에 향하는 힘. 도구를 만들고, 기기를 조작하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능력

3) 交信力—자기를 표현하고 타자와 의사소통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

4) 社會經營力—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사회기구를 개량하는 능력. 도덕력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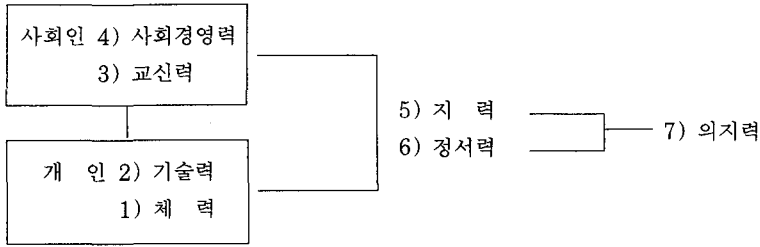
5) 知力—문자와 기호를 이해, 조작, 탐구하고,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인지능력과 합리적 판단력.

6) 情緒力—희노애락을 느끼고, 비합리적, 비현실의 세계를 간파하고, 상상하는 능력.

7) 意志力—자기의 의지로 행동하고, 선택, 계획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

인간의 살아가는 힘은, 이상의 7가지 힘의 합력이지만, 그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7) 의지력이 그 基底를 이룬다. 인간만이 자기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지의 발동의 양상에 따라, 다른 힘들의 벡터가 달라진다.

인간의 「발달」이란, 이러한 7가지 힘이 조화롭게 발달해, 그 합력이 인간개체 및 인류의 생존에 있어 最善 最適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림 1〉 인간이 살아가는 힘의 구조

그런데, 오늘날의 일본인이 살아가는 힘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료 4〉 일본인이 살아가는 힘의 현상 = 교육문제의 핵심

- ① 體力—체력은 좋으나 체력이 떨어진다/고교생의 1/3이 안경을 착용한다/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자(남자: 1/4, 여자: 1/5)/대학생의 “정신불건강” 상태(남자: 47%, 여자 61%)/정신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원 1,129명 등등
- ② 技術力—가사를 돕는 어린이의 급증/과도로 사과의 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어린이 1/3
- ③ 交信力—“침묵은 금이다”라는 전통과 더불어 등교거부/괴롭힘(いじめ)/교내폭력
- ④ 社會經營力—사회에 대한 무관심 만연/지시를 기다리는 학생
- ⑤ 知的能力—학력저하/낙오되는 학생
- ⑥ 情緒力—무표정/무감동/회로애락의 표현불가능/충동적
- ⑦ 意志力—三無主義(無氣力, 無關心, 無目的)/고교생의 중도퇴학자(12만명 = 약 100個校分. cf. 5,500個校中)

일본의 학교는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에 방아쇠가 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가장 비극적인 예: 1986년 2월 1일 東京都의 공립중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いじめ)을 견디지 못해 생긴 자살사건이나, 1990년 7월 6일 縣立고등학교 교문에서의 壓死 사건.

〈교육문제 발생의 원인 구명〉 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일까? 교육개혁, 교육개선이란 교육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하면, 교육개혁, 개선은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점에서 전망될 수 있다.

〈현재의 교육문제와 미래의 교육문제〉

5. 教育實踐, 教師教育에 貢獻하는 教育研究

〈자료 5〉 대학생의 교육에 대한 이미지

(1992. 12. 15 筑波大學 「教育基礎論」 수강생 50명의 조사에서)

I. 「教育」連想語(전체 369語 = 1인당 7.4語)

(1) 학교교육(245語 = 66.4%)

1) 학교(40語 = 10.9%)

학교 33, 學藝大 1, 사립학교 1, 소학교 1, 중학교 1, 고교 1, 대학 2

2) 인적요소(74語 = 20.1%)

① 교육자(45語 = 90%의 사람(cf. 교육자)

교사 15 + 선생 22 = 37, 敎職 1, 敎諭 1, 직원 2, 담임 1, PTA 2, 임원 1

② 피교육자(29語 = 58%의 사람(cf. 교육자)

학생 1, 어린이 9 × 1/3, 아동 3, 학생 21, 친구 1

3) 교육활동(37語 = 74%의 사람)

학력 2, 수업 5, 교과 3, 국어 1, 수학 1, 사회 1, 과학 1, 영어 1, 指導 2, 학생지도 1, 과외활동 1, 部活動(특별활동) 2, 급식 2, 西角 1, 테스트 3, 자석 1, 성적 1, 성교육 1, 체육 1, 도덕 1, 동화교육 1, 평가 1, 공부 6 × 1/2

4) 학용품, 시설(19語 = 38%의 사람)

연필 1, 교과서 8(16), 교실 2, 校庭 1, 흑판 3, 책상 1, 공책 1 등

5) 학교제도, 행정(10語 = 20%의 사람)

의무교육 1, 교육위원회 1, 교육기본법 1, 행정 1, 시행 1, 지도서 1, 통신교육 1, 법률 1, 문무성 1, 臨敎審 1

6) 일본의 학교병리(65語 = 17.7%, cf. 次項 「理想, 意義」)

괴롭힘(いじめ) 1, 시끄럽다 1, 융통성이 부족하다 1, 딱딱하다 1, 칸칸하다 1, 쓸쓸하다 1, 관리 1, 관리교육 1, 규칙 1, 엄하다 3, 의무 1, 강제 1, 괴롭다 1, 어둡다 1, 권력 1, 황폐 1, 진학 1, 시험 1, 입시 1, 집요함 1, 수험 5, 학원 1, 절대적 1, 스트레스 1, 속박 1, 체벌 1, 대단함 2, 싸움 1, 지식 3, 고생 1, 출구없음 1, 회색 1, 막연함 1, 빨리 돌아가고 싶음 1, 복종 1, 부담 1, 공부 6 × 1/2, 편차치 4, 막대기 1, 엄마 1, 어렵다 4, 귀찮다 1, 수면부족

1. 졸립다 1, 위로부터 억눌림 1, 어두운 미래 1.

(2) 教育의 理想·意義(38語 = 10.3%)

사랑 3, 따뜻함 11, 원조 1, 크다 1, 개성존중 1, 희망 2, 자기목적 1, 자유 1, 중요 1, 장래 1, 情熱 1, 자립 1, 신뢰 1, 태도 1, 武田鐵矢 1, 재미있다 2, 즐거운 기대 1, 도움이 됨 1, 단계적 1, 知力 1, 중복 1, 노력 1, 능동적 1, 자라는 아이들 1, 필요불가결 1, 평등 1, 상냥함 1, 보람있음 1, 유일무이 1, 이해 1, 이상 3, 식물에 있어서의 비료, 일광과 같은 것 1.

(3) 教育이라고 하는 行爲(30語 = 8.2%)

학습 4, 학문 1, 교양 1, 놀이 2, 상호관련 1, 教授되는 것 1, 연구 1, 현장 1, 현실 1, 어린이 9 × 1/3, 재생산 1, 시스템 1, 성장 1, 전문가 1, 양육 1, 인간 3, 발달 1, 사람 2, 문화 1, 방향성 1, 배움 1

(4) 學校外教育(22語 = 6% 학교: 학교외: 91.8:9.2)

가정 4, 어른 4, 부모 6, 양친 1, 부자 4, 환경 3, 형제 1, 어린이 9 × 1/3, 육아 1, 예의범절교육 3, 사회 3, 사회교육 1, 장해자 1, 생활관습 1, 생애교육 4, TV 1, 야외활동 1

(5) 자신에 관계하는 긴밀한 表象

(6) 개념, 교육학(15語 = 4.1%)

(7) 기타 1

II. 「學校의 色」

●검은색이 섞인 흰색(더러움)

●빨강(스트레스나 분노, 경쟁자)과 회색(마음속이 불분명한 사람)의 얼룩

▲七色(개성있는 학생의 모임이 이상)과 회색(오류와 고집)

●회색(다녔던 남자교고는 그다지 더럽지 않았다)

▲회색(校舎의 색)

▲회색(中·高的 校舎의 색)

●회색(校舎가 회색이기 때문에 점점 더)

▲회색(콘크리트의 색, 보기에 따라서는 밝게도 어둡게도 보인다)

●회색(콘크리트로 속이 약간 어둡고 습기찬 느낌이 있다)

- ▲수수한 흰색(학교 벽의 색, 산뜻하지 않는 느낌. 그리운 느낌)
- 회색(좋은 추억이 없다: 1대 1관계, 성적 등)
- 회색(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정해진 장소에서 모두 함께라는 것이 싫다)
- 회색(학생이 어둡고 선생도 활기가 없음)
- ▲회색(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 회색(현실)
- 회색(설명 없음)
- 암회색(いるめ를 당했던 나쁜 이미지)
- 회색 또는 베이지(校舎의 색. 확실하지 않음)
- 회색 또는 백색(폐쇄된 이미지, 혹은 일부 개방)
- ★백색(졸업한 학교가 자유로운 분위기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 ★백색(자기자신이 색깔을 결정할 수 있다)
- ★백색(어떤 색으로도 물들어 있지 않은 교육의 장. 그것을 토대로 어떤 색도 표현할 수 있다)
- ★백색(어떤 색에도 물든다)
- ★백색(고교의 校舎의 색. 흰 캠퍼스에 자유롭게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이미지)
- ▲백색(무미건조. 좋게도 나쁘게도 물든다)
- ▲백색(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다)
- ★백색(이상적으로 말한다면, 백지 상태)
- 백색(얇은 이미지)
- ▲백색(校舎의 색)
- 투명(무엇인지 잘 모르는 곳)
- 황색(잘 모르는 조직)
- ▲황색(설명 없음)
- ▲녹색(밝게도 보이고, 어둡게도 보인다)
- ★녹색(젊은 이미지)
- ★녹색(무한한 성장을 기대)
- ▲청색(제복, 젊음, 管理)
- 청색(校則의 이미지)
- ▲청색(무난함)

- 청색(복종의 이미지)
- 감색(복종의 이미지)
- 감색, 검은색과 같이 어두운 감색(재복의 이미지가 강하다)
- 감색(고민하고 있다)
- 짙은 청색(무난함, 밝은 색은 맞지 않는다)
- ▲살색, 붉은색(後者의 색)
- ★갈색, 물색(운동장, 體育祭, 하늘색)
- ▲갈색(성실, 분명함, 재미있게도 되고 재미없게도 된다. 가는 사람에 따라 즐겁게도 괴롭게도 된다)
- ▲갈색(校舎의 색)
- ▲갈색(木造의 校舎의 마루색)
- ★물색(소·중학교 시절은 즐겁고, 모두가 순수 열심히 생활)
- ▲소학교 = 청색(첫번째의 밝은 세계), 중·고교 = 회색(규칙에 얽매임), 대학 = 녹색(자기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
- ▲소학교 = 밝은 크림색, 상급학교가 됨에 따라 채도가 떨어지는 회색(분위기)
- ▲크림색(나의 학교의 색)
- 초·중·고 = 비오는 날의 하늘 모양(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스텝), 대학 = 장미빛(들어 가면 논다)
- (합계) ★희망 10, ●암흑 22, ▲어느 쪽도 아님 20/ 회색)백색) —을 압도

III. 「日本の教育, 이것이 問題—3가지」(144항목 = 1인 2.9 항목)

1. 受験中心教育(62항목(124%). 전체의 43.1%)

(1) 受験制度(32항목(64%))

수험 2/엄한 시험제도 = 학력편중/수험 대책 중심/수험 중심 교육 2 = 배우는 즐거움을 가르치지 않는다/수험중심학습/수험제도중심/수험과목중심/수험을 위한 공부/수험공부 제일의 지도/공부제일/수험경쟁/수험에 맞추는 교육/수험테크닉 교육/수험이 학교의 전부/수험경쟁의 격화←학력사회/수험의 幼年화/유아원, 소학교 수험/수험공부에 의한 폐해/학력관 중시의 수업편성/학력중시경향/학력편중/시험성적의 중시/성적 중시 3 = 생활태도 무시/학업이외의 성

적은 중시되지 않는다/지식편중 3/성적평가

2) 偏差値信仰(7항목(14%))

점수, 편차치 주의/편차치 편중/편차치 주의 2/편차치 교육 2/편차치 중시교육

3) 受業形態와 그 結果(23항목 (46%), 8도 참가하면 30 = 60%)

ㄱ. 注入주의/지식주입 2 =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주입식=표현력이 약해진다/공부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일이 적다/교육을 진학과 취직의 수단으로만 본다/情操교육의 결여/공부(방법보다 내용을)와 집단규율밖에 가르치지 않는다/이론만의 교육/변화에 대한 卽應성이 불충분/머리가 굳어져 있다.

ㄴ. 수업(교과서)이 재미없고 양이 너무 많다/커리큘럼 과다(주 5일제로 하기 어렵다)/커리큘럼의 과밀화/커리큘럼 과밀, 지나치게 어려움/학교 5일제/ 週休 2일제와 현행 편성의 모순/週休 2일제에 대한 대응

ㄷ. 학교의 서열화/등급분리/공립 지원의 저조

2. 管理主義 教育(24항목 (48%), 전체의 16.7%)

(1) 관리체제(9항목 (18%))

관리교육/관리주의적경향/관리체제(지나치게 관리되고, 속박됨)/학생을 학교가 정한 형태로 끼워맞추려고 한다/관리화←학생의 자유활동에 대한 두려움/교사의 태도(거만하게 굴지마)/교사의 권력이 큼→아이들의 개성을 망가트리기 쉬움/개인의 의견을 내세울 기회가 적다.

(2) 교칙(9항목(18%))

엄한 교칙 = 관리교육/교칙 등에 의한 관리주의/교칙이 지나치게 엄하다/교칙이 사생활 및 학생의 자유 속박/규칙으로 지나치게 옅어냄/교칙문제(지나치게 옅어냄)/너무 세분화된 교칙/이상한 교칙이 많다/하찮은 교칙

(3) 교육행정(5항목(10%))

지나치게 중앙집권적=획일적 학교/문부성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교육위원회에 지배받고 있다/學習指導要領의 규제가 강함 = 학교의 독자성 상실/학습지도요령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정도가 지나친 다양화 정책

3. 條件整備의 不備(7항목 (14%) 전체의 4.9%)(생략)

4. 學校와 校庭, 社會의 關係(8항목(16%), 전체의 5.6%)(생략)

5. 大學教育의 問題(4항목(8%), 전체의 2.8%)(생략)

6. 劃一的이고, 個別, 個性化를 沮害한다(18항목(36%), 전체의 12.5%)

개성화와 평등화의 문제/개성존중과 平等觀과의 모순/학력의 평균화/과목 선택의 폭이 넓다/개별지도의 곤란/개별성이 불충분/「낙제」나 「월반」이 없다/획일적(같은 것을 같은 속도로 배우게 한다)/공립학교의 균일화(특색이 없음)/누구든지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개성을 경시/개성무시/개성없는 학생/교사에게 개성이 없다/沒개성(형적 평등의식)/학생의 내면까지 간파하지 않는다→등교거부/학생의 인격무시/교사의 일방적 강의, 학생들의 토론형식의 수업이 적다.

7. 敎員의 質의 問題(7항목(14%), 전체의 4.9%)(생략)

8. 受動的 學習(7항목(14%), 전체의 4.9%)

수동적 학습/수동적/수동적 수업(학생의 자주성을 존중하지 않는다)/수동적 학습이 너무 많다/학생이 자주적이지 못하다 = 수동적/일방적으로 가르친다 = 학생의 자주성이 키워지지 않는다/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9. 學生의 問題行動(7항목 (14%), 전체의 4.9%)

괴롭힘(いじめ)3/비행/체벌/등교거부 2←인격교육의 과제

(付)좋은 면: 규율 바르다.

이들 학생체험자들, 예비교사들의 문제의식에 응답하는 교육연구를 과제로 하고 싶다.

맺음말—國際 共同研究 體制의 必要性

1) 「21세기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인류는 지금까지 어떠한 교육 유산을 남겨왔는가」에 대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교육적 英知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英知는 많으면 많을수록 높고 풍부해진다→「세계로부터 지혜를, 세계에 지혜를!」, 「세계」의 「인류」의 英知를 탐구하자. 「세계」의 「인류」의 英知는, 세계 각국의 교육적 英知의 전개를 「비교」함으로써 끄집어낼 수 있다. 종래의 비교 연구는, 相異點의 해명에 편중되었다. 앞으로는 「생존문제 해결능력 육성」을 위한 共通性의 해명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인류의 생존문제의 중핵은, 衣食住 문제라고 하는 인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능

력을 육성하는 교육에도 공통성이 있을 것이다.

3) 研究方法 = 動的 比較教育學—日氣豫報的, 航跡追跡的 方法

4) 이상의 연구는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자와 실천자의 連携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